

 보건복지부		<h1>보 도 자 료</h1> <p style="color: red;">7월 16일(화) 행사 시작(14:00) 이후</p>	
배 포 일	2019. 7. 16. / (총 6매)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과 장	방 석 배	전 화	044-202-3070
담 당 자	임 희 주 박 정 수		044-202-3073 044-202-3076

저소득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을 돕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한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기념식 개최 (7.16) -
- 자활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중앙자활센터 확대 개편-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 출범 기념식이 7월 16일(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 개발원은 기존의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저소득 빈곤계층의 자활 자립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중앙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 조정 및 사업 참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역할 수행하는 기관

** (자활연수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직업역량교육 등 정기적·체계적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

○ 특히, 개발원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빈곤계층의 탈빈곤, 탈빈곤 이후의 자립 경로 강화, 자활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아울러, 개발원은 광역자활센터(11개소) 수탁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개발원 출범과 더불어 자활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수급자의 탈수급 위주의 지원에서 차상위자 등의 빈곤예방으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빈곤 경계선에 있는 계층이 갑작스러운 소득하락으로 수급자가 되거나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예방적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자활사업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
- 이를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안에 자활일자리 1만 개를 추가* 하여 자립가능성이 높은 대상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 ('19년 본예산) 4만 8000명 → ('19년 추경예산 정부안) 1만 명 추가
- 아울러 현행 최저임금보다 낮은(최저임금 80%수준) 자활참여자 급여를 참여 사업장 수익성과에 따라 유인(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차상위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설을 추진하는 등 자산형성사업 강화를 통해, 수월하게 목돈을 마련하게 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본인부담 10만 원 적립, 3년 만기 시 최대 약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 중

- 자활사업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경로인 자활기업 구성요건을 완화하고, 관계부처 및 기업 등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신규 사업 분야를 적극 개척하기로 하였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기념식에서 “개발원이 자활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보건복지부와 함께 다양한 자활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자활사업 활성화가 수급자, 차상위자 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입을 지원하여, 소득 1분위 계층의 생활여건이 나아지고 빈곤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붙임 >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식 계획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요

붙임 1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출범 기념식 계획

①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 법령 개정안 시행('19.7.16.)에 따라 (재)중앙자활센터 등을 확대 개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원 ('19.7.16)

② 행사개요

- 일시 : 2019. 7. 16(화) 14:00 ~ 16:0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 주요행사 내용
 - 개회식, 기념식, 시상식(장관표창 10건), 축하공연 등
- 참석인원 : 200~250명 예정
 - 정부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 국회 : 남인순 의원, 서형수 의원, 오제세 의원 등
 - 당사자 : 중앙자활센터, 자활연수원, 광역자활센터
 - 유관단체 : 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기업협회, 센터·자활기업 등

③ 행사 내용

<주요 행사 일정>

일시	구분	주요 내용
14:00~14:20('20)	개회식	국민의례, 내·외빈소개, 환영사, 축사
14:20~14:50('30)	기념식	비전영상 상영, 설립 퍼포먼스
14:50~15:20('30)	시상식	공로자 시상, 기념사진 촬영
15:20~15:50('30)	축하행사	행사 축하공연
15:50~16:00('10)	폐회식	폐회, 기념품 지급

붙임 2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요

□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시행('19.7.16.)에 따라 (재)중앙자활센터 등을 확대 개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개원('19.7.16)

□ 역할 및 기능

- 저소득·근로빈곤층에 대한 탈빈곤과 빈곤예방 등 맞춤형 사회보장으로서 자활사업의 질적·양적 제고
- 자활연수원 통합운영, 광역자활센터(11개소) 수탁운영 및 자활지원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자활지원 인프라의 체계성, 전문성 강화

□ 주요사업

- 자활지원사업, 취·창업을 위한 자활촉진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공공·민간자원연계, 대상특화(청년, 중장년 등) 등 일자리 창출
 - 심층상담관리 체계화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역·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지역·광역자활센터의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 및 일자리 개발 지원
 - 자활기업 창업 및 성장단계별 지원, 전국자활기업 설립 지원
- 자활사업 정책플랫폼 구축·운영
 - 빈곤층 유입 반복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정보전산망 구축·운영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참여자·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한국자활연수원 운영)

□ 자활복지개발원 운영전략

미션	일·복지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활 및 삶의 질 향상				
비전	저소득층의 경제·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 선도기관				
핵심 가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5%;">창의</td> <td style="width: 25%;">협력</td> <td style="width: 25%;">소통</td> <td style="width: 25%;">전문성</td> </tr> </table>	창의	협력	소통	전문성
창의	협력	소통	전문성		

전략 목표	1. 건강한 일자리 창출	2. 자활사업 기반구축	3. 경쟁력 있는 자활인력 육성	4.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전략 과제	1)자원연계·협업 통한 일자리 개발 2)자활기업 경쟁력강화 3)참여자 맞춤형 자활 사업 운영지원 4)취업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지원	5)개인별 맞춤형 지원 강화위한 전산망구축·활용 6)체계적인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7)자활정책·사업 기반 연구 활성화 8)성과관리체계 개선 및 지원강화 9)자활사업 참여·성과 홍보 강화	10)참여자 자활역량 강화 11)전문성있는 종사자 양성 12)교육과정 개발·지원 역량강화	13)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 14)경쟁력있는 조직기반 구축